

우리나라 主要産業의 國際競爭力

金 鍾 彬

I

우리나라 主要産業의 國際競爭力를 直接 다룬 研究는 이미 數種을 헤아릴 수 있는데 우선 눈에 띄이는 것을 들어보면 韓國外換銀行 『調査月報』 1968年 6月號에 掲載된 「우리나라 輸出産業의 國際競爭力」이라는 論文과 韓國生産性本部 生産性研究所의 1968年 12月刊 『主要産業의 國際競爭力強化對策의 研究』라는 單行本 및 韓國貿易協會 1969年 4月發行의 『輸出産業의 國際競爭力比較에 關한 研究』라는 冊子가 있다. 本稿에서는 上記 세 文獻의 研究結果를 解說 論評하고 앞으로 이 問題에 대한 研究의 方向과 方法을 摸索코자 한다.

II

上記 文獻에서는 어떤 商品의 國際競爭力를 그 商品의 어떤 海外市場의 市場占據率을 基盤으로하여 定하고 이의 量의 把握을 위하여 各主要輸出商品 輸出實績에 Liesner의 公式⁽¹⁾을 適用하고 있다. 占據率을 決定하는 要因으로는 各競爭相對國과의 絶對的인 生産原價差異를 들고 있으며 生産原價의 國際比較를 通하여 우리나라의 生産原價高(=國際競

(1) 『우리나라 輸出産業의 國際競爭力』에 의하면 이 公式은 H.H. Liesner가 *Economic Journal*, Vol. LXVIII, 1958에 掲載한 “The European Common Market and British Industry”에서 發表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n : 競爭國의 數

F_a : a國이 一定期間中 特定市場에 輸出한 特定商品의 金額

K : 自國이 一定期間中 特定市場에 輸出한 特定商品의 金額

F_a^c : a國이 比較年度에 特定市場에 輸出한 特定商品의 金額

F_a^b : a國이 基準年度에 特定市場에 輸出한 特定商品의 金額

K^c : 自國이 比較年度에 特定市場에 輸出한 特定商品의 金額

K^b : 自國이 基準年度에 特定市場에 輸出한 特定商品의 金額

$F_a' = \frac{F_a^c}{F_a^b}$; a國 特定商品의 輸出伸長因子

$K' = \frac{K^c}{K^b}$; 自國 特定輸出商品의 輸出伸長因子

競爭力指數

$$R = \sum_{a=1}^n \left\{ \frac{F_a}{K} + 0.5 \left(\frac{F_a}{K} \right) \left(\frac{F_a^c}{F_a^b} \right) / \left(\frac{K^b}{K^c} \right) \right\} \times 100$$

$$= \sum_{a=1}^n \left\{ \frac{F_a}{K} \cdot (1 + 0.5 \frac{F_a^c}{F_a^b}) \right\} \times 100$$

『우리나라 輸出産業의 國際競爭力』에 引用된 限에 있어서는 Liesner의 指數는 過去 “國際競爭力”의 趨勢를 보일뿐 輸出伸長을 위한 構造的變革이나 輸出伸長은 通商社會厚生向]에는 아무런 示唆를 주지 않고 輸出伸長의 統計的 豫測에도 特別 貢獻하는 바 없다.

(2) 이것을 圖解하면 다음과 같다.

(i) 純粹競爭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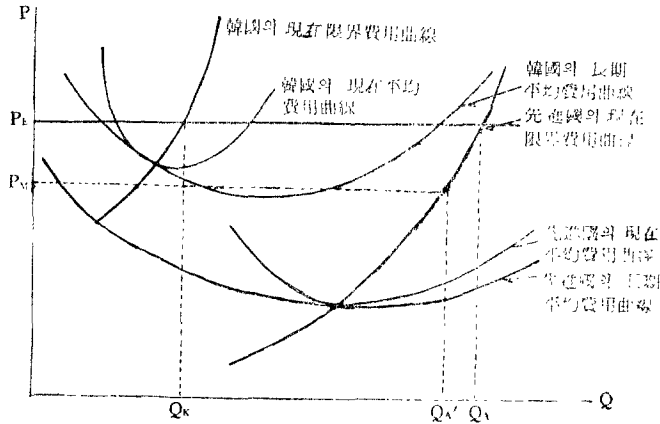


圖 A

即 圖A에 있어서와 같이 純粹競爭의 경우에 있어서는

國際市場價格이 P_E 일때 韓國은 Q_K 를 輸出하고 先進國은 Q_A 를 輸出한다. 그러나 價格이 P_M 로 下落하면 韓國의 輸出은 零이 되고 그때에도 先進國은 Q_A' 를 輸出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ii) 獨占的競爭時;

先進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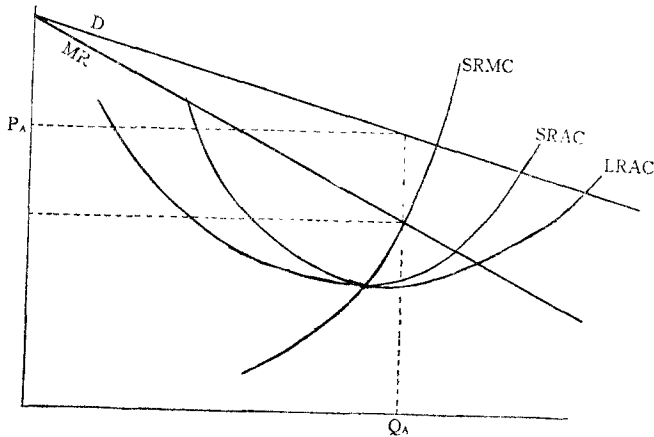


圖 B

爭力弱화)가 生産規模의 過少, 金利費用의 過重, 技術不足에 의한다고 斷定하고⁽²⁾ 이의 解決方法을 提示하였다.⁽³⁾

다음으로 上記文獻을 論評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海外市場占據率을 全的으로 競爭相對國과의 絶對的生産原價의 差異에 結付시킨 것은 企業家の 輸出活動原理에 特別한 假定을 設定할 때만 妥當하다고 할 수 있다. 一國의 貿易量을 決定하는 것은 絶對生産原價가 아니고 比較生産原價와 社會選好等이라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지만 文獻論評을 위하여 이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A, B 兩國을 들어서 그 生産要素가 下記와 같다고 하고

	資本	勞動
A.	K_A	L_A
B.	$K_B < \frac{1}{2}K_A$	$L_B = \frac{1}{2}L_A$

A, B 兩國은 勞動集約的인 商品 X와 資本集約的인 商品 Y의 두가지 商品을 生産할 수 있는데 技術은 A 國이 B 國보다 優秀하여 모든 資本과 勞動의 結合에서 A 國은 B 國보다 두가지 商品을 더 많이 生産할 수 있다고 한다. 換言하면 두 商品의 生産原價는 B 國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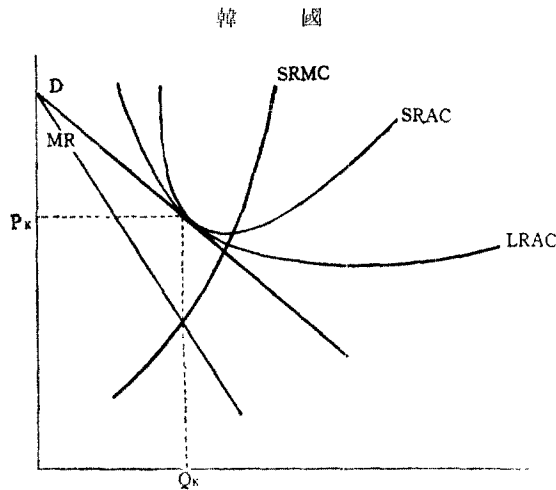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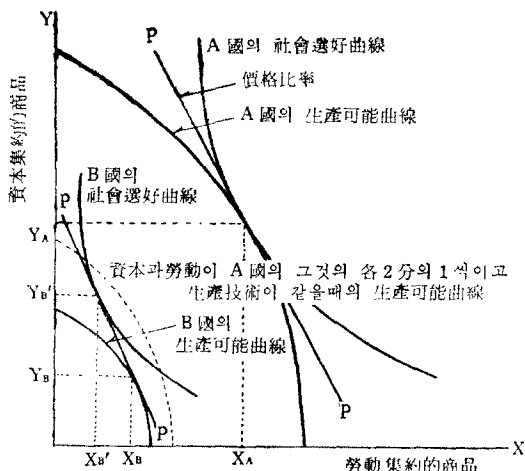
圖 C

다음에 圖B와 C에서 보면 先進國의 경우 原價는 낮은데 反하여 需要는 높으므로 價格이 P_A 일 때 Q_A 를 輸出하여 利潤이 發生한다. 그러나 圖C에서의 韓國은 原價는 높고 需要는 낮아서 P_K, Q_K 에서 가가스로 生産費用이 補償됨을 알 수 있으며 이때 만약 需要가 조금만 떨어져도 輸出은 零이 되고 만다.

(3) 輸出業體의 企業診斷 및 原價分析에 關해서는 韓國貿易協會가 豊富한 人的 物的資源을 動員하였기 때문에 매우 包括的인 研究結果를 냈다.

A 國보다 미싸다.

上記 資料에 의하여 A, B 兩國의 生産可能曲線을 그리고 社會選好曲線을 添加해 보면 第 1 圖와 같다.



第 1 圖

第 1 圖에 있어서 두 商品間의 國際價格比率이 PP 라면 A 國은 (X_A, Y_A) 를 生産하여서 全量을 自國內에서 消費할 것이고 B 國은 (X_B, Y_B) 를 生産하여 X_B/X_B 와 $Y_B Y_B'$ 를 國際市場에서 交換하여 (X_B', Y_B') 를 消費할 것이다. (4) 다시 말하자면 A 國의 兩商品 國際市場占據率은 '중인데 대하여 B 國 X 商品의 그것은 '중보다 크므로 B 國 X 商品의 國際競爭力은 A 國의 그것보다 작다는 假定에서 始作해서 크다는 結論에 到達하게 되어 自家撞着에 빠지게 되며 한편으로는 單純한 輸出督勵策이 社會厚生과 背馳되는 可能性도 示唆하는 것이다. 勿論, 技術向上에 의한 生産原價의 切下가 輸出을 伸長하든지 萎縮하든지 社會厚生을 上昇시킨다는 것은 異論의 餘地가 없으나 輸出伸長의 要因은 生産原價節減 그 自體보다는 國內選好, 海外選好, 海外生産事情等の 錯雜한 關係라는 것을 指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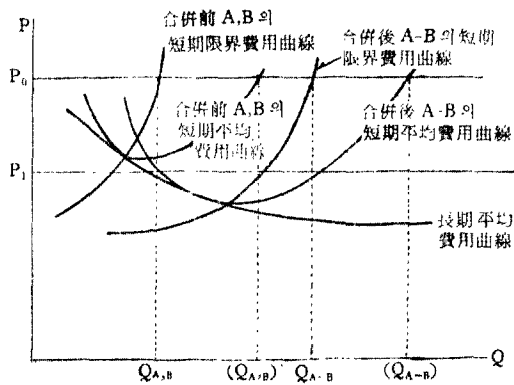
그러나 企業이 利潤極大化보다는 外貨稼得自體를 行動原理로 한다면, 即 具體적으로는 企業이 生産費만 補償되는 限, 國內市場의 收益性은 無視하고라도 輸出을 한다면 (5) 國際競爭力(海外市場占據率)을 "絶對"生産原價에 結付시키는 것도 意義가 있고 따라서 既存 海外市場占據率擴大 및 海外市場參入作戰이 關心의 焦點이 된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이 두가지에 대하여 考察코자한다.

(4) 이것은 勿論 企業의 利潤極大化와도 一致한다.

(5) 우리나라가 當面하고 있는 焦眉의 急務는 國際交易을 통한 社會厚生向上보다는 外資借款償還能力確保에 있으니 만큼 赤字輸出이라도 敢行해야 할 形便이고 이런 경우에는 稅制等을 통한 適切한 補償이 있어야 할 것이다.

III

海外市場占據率 擴大作戰부터 생각해 보면 需要가 彈力的이라면 (純粹競爭的 혹은 獨占的競爭이지만 商品異質이 적을 때) 合併吸收等を 통해서 生産規模를 擴張함이 所望스럽고 需要가 非彈力的일 때에는 商品異質을 強化하여 小規模에서 生産하는 것이 이롭다. (反對의 境遇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圖解하면 다음의 第2圖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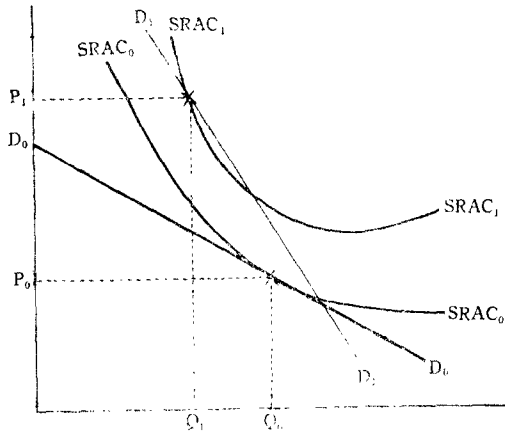
第2圖

A, B 두 輸出業體의 合併을 前後한 短期平均費用曲線 및 短期限界費用曲線이 第2圖와 같다면 合併前에는 輸出量이 다같이 $Q_{A,B}$ 가 되어 總輸出賣上高는 $2 \times P_0 \times Q_{A,B}$ 가 되며 合併後의 輸出賣上高는 $P_0 Q_{A-B}$ ($> 2P_0 Q_{A,B}$) 가 된다. 그런데 國際價格이 P_0 에서 P_1 으로 떨어지면 合併前의 輸出은 減이 되나 合併後일 때에는 如前히 若干을 輸出할 수 있다. 即 合併을 통해서 國際競爭力을 安定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後者の 境遇는 다시 第3圖로서 圖示할 수 있다.

即 短期平均費用曲線 $SRAC_0$ 와 需要曲線 D_0 가 現在의 狀況이라면 輸出賣上高는 $P_0 \times Q_0$ 인데 商品異質을 強化한 結果, 生産原價는 上昇하여 費用曲線은 短期平均費用曲線 $SRAC_1$ 로 需要曲線은 需要曲線 D_1 로 移動하고 輸出賣上高는 $P_1 \times Q_1$ 이 되는데 (P_0, Q_0) (P_1, Q_1) 間의 彈力性이 1 보다 적으면 $P_1 \times Q_1 > P_0 \times Q_0$ 가 되어 輸出은 增進된다. (P_0, Q_0) (P_1, Q_1) 間의 彈力性이 1 보다 크고 現在의 狀況이 1 이라면 D_0 로 移動하여 $P_0 \times Q_0$ 의 外貨를 稼得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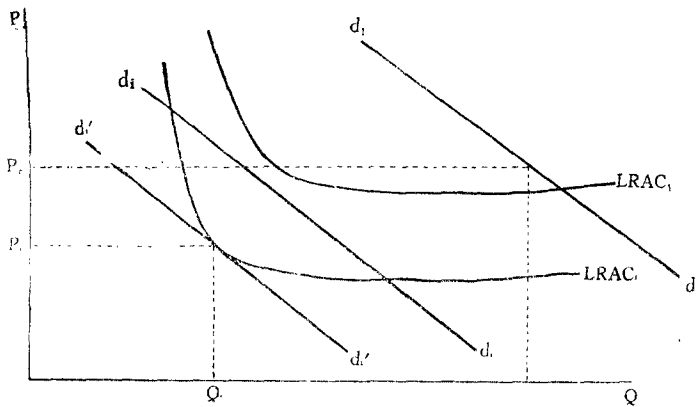
다음에는 海外市場參入作戰을 考察한다. 海外市場開拓(參入)에는 既存 輸出相對國業者



第 3 圖

및 競爭國輸出業者의 反動 및 報復이 隨伴하므로 既存業者에게 公公然히 挑戰하여 市場 再分割을 要求한다는 것은 熾烈한 價格競爭을 招來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現在 生産 原價構造로서는 勝算이 稀薄하므로 "潛航"作戰을 提案한다.

潛航作戰이란 參入의 隱密과 商品異質을 骨子로 하는데 그 內容을 圖示하면 다음과 같 다.



第 4 圖

여기서

LRAC₁: 參入業者가 既存業者의 商品과 品質이 비슷한 商品을 製造할 때의 長期平均費用 曲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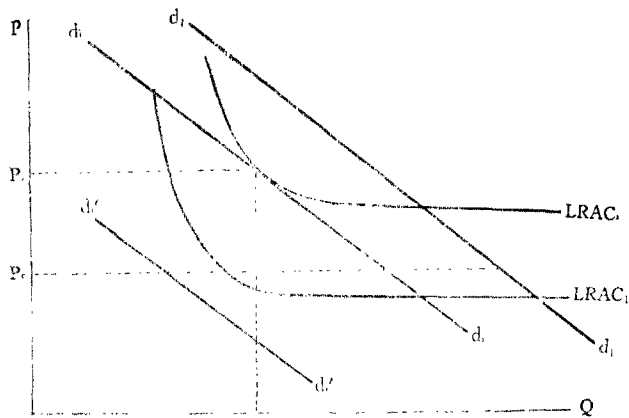
LRAC_i : 參入業者가 粗惡品을 製造할 때의 長期平均費用曲線

$d_1 d_1'$: 既存業者의 市場占據

$d_i d_i'$: 參入業者가 既存業者와 同一한 價格을 設定할 때의 市場占據

$d_i' d_i'$: 既存業者가 그의 價格을 P_c 에 固定할 때의 參入業者의 諸價格에 對한 市場占據
 라고하면 新規業者가 隱密히 參入, 粗惡品을 製造하여서 價格을 P_i 에 設定하면 Q_i 를 販賣할 수 있어서 生産費가 補償된다. (新規業者의 參入이 隱密하고 그 市場占據가 僅少함으로 既存業者의 反動 報復은 無視할 수 있다.)

다음에 新規業者가 高級品을 製造하여 市場에 參入하는 경우는 第5圖와 같다.



第5圖

LRAC_i만 除外하면 各記號의 意味는 前圖의 境遇와 같은데 LRAC_i는 參入業者가 高級品을 製造할 때의 長期平均費用曲線이다. 第4圖에서는 低級品을 製造함으로써 參入時에 生産費가 補償되었듯이 第5圖에서는 高級品을 가지고 參入할 때에 生産費가 補償됨을 알 수 있다.

IV

前述한 바와 같이 輸出伸長에 있어서는 生産費보다는 需要도 重要한 決定要因이므로 앞으로의 輸出伸長方案研究에 있어서는 海外市場의 計量經濟學的 및 其他의 方法에 의한 現存 및 潛在需要의 研究가 必要不可缺하다. 目前에 言及한 文獻에는 需要分析이 없고 그 외에도 需要分析에 關해서는 別般 報告가 없으므로 이 分野의 研究는 必要로 緊急하다.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講師]